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vance Gas books another pair of dual-fuel VLGCs at DSME

대우조선해양이 Avance Gas로부터 Dual-fuel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91,000CBM급이며 인도기한은 2022년 말, 2023년 1분기라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7,750만달러라고 보도됨. (TradeWinds)

Methane emissions will rebound without strong action, IEA warns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Oil업체들과 정책담당자들이 전세계 메탄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더 강력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함. IEA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수요 감소와 석유와 가스 감산으로 10% 가량 줄어들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없다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Upstream)

Chinese giant signs carbon-neutral LNG cargo deals with Shell and Total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가 5개의 탄소중립 LNG화물 계약을 Total 및 Shell사와 체결했다고 보도됨. 중국의 에너지 전환 기초의 일환이며, 이번 계약은 112만톤 가량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보도됨. (Upstream)

KSS해운, VLGC 발주

KSS해운은 876억 6,149만원 규모의 신규 시설투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함. 투자대상은 91,000CBM급 초대형 가스운반선(Very Large Gas Carrier)이며 투자규모는 자기자본대비 31.4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보도됨. 투자기간은 2022년 8월까지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선이 cash cow

컨테이너선 시장의 호황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 해체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보도됨. 2020년 하반기 컨테이너선 해체량은 34척 (68,000TEU)로 상반기 55척(129,750TEU)대비 큰 폭으로 줄었으며, 이는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후선박의 폐선을 유보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항공우주산업 · KAIST 맞손...소형위성 분야 개발 · 사업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소형위성 분야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두 기관은 소형 · 초소형 위성시스템 및 지상국 개발과 구성품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술이전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상호 분야에 대한 공동장비 활용 등에도 합의했다고 보도됨. (연합뉴스)